

1. 독일 통일을 위한 제반 조건들

- 1) 1970년 3월에 동독의 에어푸르트에서 동, 서독 정상 회담을 가졌으며, 5월에 서독 카셀에서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두 번의 회담을 통하여 동서독은 공식적으로 교류를 시작하였다.
- 2) 1972년에는 동서독 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본 협정을 체결하였다.
- 3) 1973년에는 동서독이 나란히 유엔에 가입하였다. 동서독인들 간의 우편 및 전화 연락은 이미 회담 이전에도 가능하였지만 이러한 회담 이후에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서 상호 방문 및 출판물 또는 방송 또한 접할 수 있었다.
- 4) 1974년에 동서독에 상주 대표부가 설치되었고, 동 베를린에 서독 언론 주재원들이 파견되어 서독의 저녁 뉴스에 동독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고, 서독의 출판사에서 동독 작가의 작품이 출판되기도 하고, 동독에서 출판된 작품 또한 서독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었다. 동독 주민들도 안테나를 설치하여 서독의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독 주민의 경우 서독인이 동독으로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당국의 허락을 받은 이 또는 고령의 연금 생활자 중 서독 지역에 친척이 있는 경우에만 서독 방문이 가능하였다.

2. 독일 통일 과정

- 1) 1970년 두 번의 정상회담(Erfurt, Kassel): 공식적인 교류 시작
- 2) 1973년 동서독 UN 동시 가입: 기존의 동서독간 연락 외에 상호 방문 및 출판, 방송물도 교류, 서독에 상주 대표부 설치, 서독인의 자유로운 동 베를린 여행
- 3) 1989년 동독 지방 의회 선거 관련 시위/ 헝가리의 오스트리아 국경 개방: 헝가리 -> 오스트리아 -> 서독으로의 탈출 행렬
- 4) 1989년 여름 동독 내 반 정부/체제 시위 물결: 동독 정부에 대한 반발 심화/가시화
- 5) 1989년 가을 각종 시민단체 결성: 9월(신 포럼), 10월(민주 봉기)
- 6) 재야 시민 인사 중심으로 반정부 움직임 강화: 1989년 9월 이후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성당>에서 정기적인 월요 기도 모임 열림

7) 1989년 10월 7일 동독 건국 40주년 기념식

8) 1989년 10월 19일 당 서기장 호네커 퇴진: 더욱 거세지는 민주화 요구(자유선거, 정치 개혁, 여행 자유)

9) 1989년 11월 7일 동독 정부 내각 총 사퇴

10) 1989년 11월 9일 저녁 - 역사적인 기자회견:

“자유롭게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다”

11) 1989년 11월 9일 밤 베를린 장벽 개방: 기자회견 내용이 당장 당일 저녁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갑작스레 베를린 장벽 경비 초소로 몰려든 인파들, 국경 경비초소 우왕좌왕하는 사이 장벽 개방

12) 1990년 10월 2일 동독 인민 회의 개최: 동독 정부 공식 해산, 동독지역 5개 주 서독 연방 주로 편입(서독 기본법 23조)

13) 1990년 10월 3일 0시: 독일 통일 선포

3. 독일 통일의 후유증들

통일 이전에도 꾸준히 동서독간의 교류가 이루어졌음에도 통일 독일은 여전히 수많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구 동독 지역의 산업수준이나 임금수준 및 생활 수준이 아직도 구 서독지역인들의 수준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구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서독 지역에 비해 여전히 약 20%정도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구 동독인들이 구 서독인들에 대하여 갖는 소위 ,제 2등 국민/시민‘이라는 열등감이다. 구 동독 출신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열등감 즉 심리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 통일 과정 속에 드러난 동독 지식인들과 일반 국민의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

베를린 장벽이 개방될 때까지 동독 지식인과 민중은 민주화라는 같은 목적을 놓고 연대하였으며, 이는 장벽 개방 이후에도 굳건하였다. 먼저 동독 지식인 및 작가들은 현실사회주의의 문제점을 타파하고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에게는 의사표현의 자유, 정치 개혁, 여행 자유화 등 현실적인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였다. 따라서 지식인들이 동독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개혁 개방 등을 통하여 사회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동독의 변혁을 꾀했던 것과 달리 일반 민중들이 연이어 서독 지역으로 이주하

였다. 다시 말해 지식인들이 사회주의 이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 건설을 꿈꾸었다면, 일반 국민들은 이념이나 국가 체제보다는 일상 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자유와 행복 영위를 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등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동독 지식인과 일반적인 국민들 사이의 서로 다른 입장은 이미 1989년 11월 말부터 극명하게 드러났고, 이는 1990년 3월 인민의회 총선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그 동안 반 정부 시위를 이끌었던 동독 시민 단체 및 재야 운동가들이 세운 정당인 '새로운 포럼' 등이 모두 총선에서 5%에도 이르지 못하는 지지를 받음으로써 지식인과 민중은 결별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감과 아울러 바람직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희망하던 지식인들은 크나큰 좌절감을 맛보았으며, 하루 아침에 낯선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된 동독의 운명과, 1990년 6월에 전국을 강타한 크리스타 볼프 논쟁으로 촉발된 구 동독 출신 작가와 지식인들에 대한 일련의 '단죄'를 겪으며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통일을 대하는 구 동독인과 구 서독인 간의 입장 또한 달랐다. 이는 예술 분야 특히 문학 분야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통일 문제를 다룬 작품은 거의 예외 없이 구 동독 출신의 작가들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즉 구 동독인들에게 통일이 더 아픈 문제

라는 것이 드러난다.

4. 독일 통일 후유증 발생 원인들

1) 단시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나 버린 통일: 통일이 너무나 단시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통일 이후 국민 통합 과정에 대한 준비가 짧았다.

2) 경제 대국 서독으로 가난한 동독이 흡수된 통일: 동독과 서독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각 정부가 가진 대 국민 정당성의 차이로 인하여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되는 형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다.

1990년 10월 2일에 동독 인민회의가 열리고 동독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산되었고, 동독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서독 기본법 23조에 따라 동독의 5개 주가 서독 연방 주로 편입되었고 10월 3일 0시에 독일 통일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동독은 완전히 소멸되었지만, 서독은 공식 명칭 독일 연방공화국(BRD)도 그대로 사용하였고, 정치, 사회, 경제 체제 모두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등 구 서독인들은 모든 것을 다시 처음부터 배우고 익히고 적응해야만 했던 구 동독인들에 비하여 통일 이후의 변화를 절실히 체감하지 못하였다.

5. 독일 통일의 후유증들 - 통일 독일 문학 논쟁 - 구 동독 출신 작가들을 둘러싼 연이은 악재들

독일 문학계는 통일 후유증을 그 어떤 분야보다도 더욱 힘들게 앓았다. 다른 체제 속에서 다른 테마에 몰두하였던 문학이 단기간에 통합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문학계 또한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된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통합되었는데, 서독의 작가들이 통일 전후 별다른 차이 없이 계속해서 집필활동을 했던 것과 반해 동독 작가들은 심각한 실존적 위기를 겪었다.

1) 크리스타 볼프 논쟁: 크리스타 볼프가 통일 이전에 탈고한 작품을 베를린 장벽 개방 이후 발표한 소설 <남아 있는 것> 때문에 촉발된 논쟁 - 동독 정부에 반하는 내용이 담긴 소설을 왜 동독이 와해된 이후에야 발표한 것인가? 그 때 하지 않고?

- 크리스타 볼프는 1979년 여름에 탈고하였지만, 발표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다가 1989년 11월, 즉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에 다시 손질하여 서독 출판사를 통하여 108페이지짜리 중편 소설 <남아 있는 것>을 출판하였다. 한 여성 작가가 정보기관원들에게 감시 당하는 일과를 그리고 있는 이 소설은 감시 당하는 이가 느끼는 불안감과 혼란스러운 내면 등을 감정이 배제된 톤으로 서술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감시 당하는 사람의 불안과 공포, 우울 등 주관적 심리 상태를 세밀하게 묘사한 이 소설은 동독 내에서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감시와 통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동독 정부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벌인 많은 문제 있는 활동들, 특히 슈타지(국가안전부)에 의해 자행된 무차별한 개인의 자유 억압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독일 통일 이전에 서독에서 가장 주목 받으며 많은 인기를 누리온 크리스타 볼프의 이 소설에 대해 서독 언론은 그러나 이래적으로 엄청난 혹평을 하였다. 왜 볼프가 동독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폭로하는 이 소설을 동독이 아직 간재하던 시절이 아니라, 통일 이후에 발표하였는가가 문제가 되었다. 구 서독지역의 언론들은 볼프가 동독에 머물러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여 놓고(만약에 이 소설을 동독 체제 하에서 발표하였다면 그녀 또한 다른 많은 작가들처럼 동독에서 추방 당하였을 텐데, 동독에 남기 위하여 또한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원고를 감추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통일 이후에 마치 자신이 동독 체제의 희생자인 것처럼 연출하는 어용작가라며 비난하였다. 많은 동독 출신 작가들은 동독 작가들에게 가해지는 서독 언론의 집중 공세에 „동독문학은 훨씬 두들겨 맞은 개와 같다“(헬가 퀴니히스도르프: Die Zeit, 1990.6.1)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 신념 미학 논쟁: 동서독의 좌파 지식인들(하인리히 뵐, 귄터 그라스, 발터 엔스 등)이 문학에 도덕적인 면 및 정치적인 기능을 과도하게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작품은 미학적으로 크게 가치가 없다!

-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이 완수된 이후에 문학 논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크리스타 볼프를 필두로 동독 작가들의 도덕적, 정치적 입장 및 활동에 맞추어졌던 초점이 동독작가와 작가적 역량 및 그들 작품의 미학적 수준에 대한 의문 제기로 옮겨 갔으며, 이러한 비판이 서독의 좌파 인사들에게도 가해졌다.

즉 동독 문학에 대한 비판이 문학의 정치적 기능과 성격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되었는데, 동서독의 좌파 지식인들(하인리히 뵐, 귄터 그라스, 발터 엔스 등)이 문학에 도덕적인 면 및 정치적인 기능만을 과도하게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작품이 미학적으로 크게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제 문학은 신념을 담고, 이를 교육할 수 있는 기능을 할 때 가치가 있다는 시의 „신념 미학“에서 벗어나 문학 고유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3) 슈타지 논쟁: 동독 시절 겉으로는 체제 비판적인 운동을 하고, 그러한 글들을 발표하였었는데, 통일 후 그들 중 상당수가 슈타지 비밀요원으로 활동하였음이 드러났다. 무엇이 진짜인가?

- 그러나 프라우케 마이어-고자우는 비공식 슈타지 요원으로 활동하였던 작가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녀는 첫째로 많은 작가들이 사회주의와 동독 체제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슈타지에 협력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둘째로 바브리헬레 에크하르트나 귄터 드 브루원처럼 슈타지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조할 수밖에 없었으며, 셋째로 하이너 뮐러의 주장처럼 슈타지 간부들과 자주 접촉하여 이야기를 나눈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통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슈타지 비밀 요원직을 이용하였다며, 동독 작가들의 과거 슈타지 비밀 요원 전력을 단편적인 시각으로 쉽게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이러한 논쟁들을 겪으면서 많은 통일 이전에 왕성하게 활동하여 유명세를 얻은 중견 동독 작가들, 예술가들이 통일 독일 예술계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념 논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동독 출신 젊은 작가들만이 통일 독일 문학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독 작가들은 자연히 독일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왜 독일 통일을 다룬 동독 작가들의 작품에 장미빛 미래에 대한 설렘보다는 회한과 망연자실의 감정 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독일 통일 이후의 문학 경향

1) (동독시절부터 왕성한 활동을 해온)동독 2세대 작가들: 크리스타 볼프, 헬가 괴니히스도르프, 크리스토프 하인, 폴거 브라운 등 - 연이은 논쟁들을 겪어내며, 지워져 버린/사라져 버린 시간과 그 시간 속 자아에 대한 상실감: 체념, 회한, 우울, 비판 절망의 분위기

크리스타 볼프 (1929-2011) <메데이아, 악녀를 위한 변명>(1996)

“세월이 흐를 수록 지난 일은 더욱 찬란하게 보이는 법이다. 누구에게나 그렇다. 찬란했던 시절에 매달려 봤자 부질없는 짓이다. 그렇다면 무엇에 매달려야 한단 말인가? 메데이아? 그녀와 함께 몰락해야 한단 말인가? 아, 머리가 돌아버릴 것만 같다.”(볼프, 53쪽)

2) (굶을 대로 굶은 동독 사회의 폐해부터 보아 온)동독 3세대 작가들: 토마스 브루시히, 잉고 술체, 야나 헨젤, 마티나 헬린, 볼프강 앵글러 등 -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향수, 깨어져버린 이상에 대한 회한 없음.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 다양한 시각, 날카로운 비판, 서늘하리만치 차갑고 냉정한 관찰과 서술, 유머

토마스 브루시히(1964- 현재 구 동베를린 지역 거주) <존네파레>(1999)

“정말로 일어난 일을 보존하고 싶은 사람은 기억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인간의 기억은 지나간 것을 꼭 잡아두기에는 너무나 느긋한 과정이다. 인간의 기억은 인간의 기억이라고 사칭하는 것의 반대이다. 왜냐하면 기억은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기억은 끈기 있게 과거와 평화를 맺을 수 있는 기적을 행한다. 그 기적 속에서 모든 분노는 사라지고, 날카롭게 잘려진 모든 것들을 노스탤지어의 부드러운 베일이 덮인다.

행복한 사람들은 나쁜 기억력과 풍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브루시히, 208쪽)

소위 명망있다는 동독 출신의 지식인들/작가들/예술가들이 통일 독일에서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의 삶은?

공산권 국가에서 강단에 섰던 대학 강사는 사상 문제로 대학 강단에서 쫓겨나 주유소 주유원으로 일하고, 동독 정부 우주항공 연구소 연구원이었던 이는 마트 점원이 되기도 하고, 그나마 그렇게라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운이 좋은 편이었다. 하루 아침에 일 자리를 얻지 못하고 실업자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많았으니...

* 참고문헌

임종대 외: 독일이야기 2, 서울: 거름 2000

크리스타 볼프 지음, 김재영 옮김, 서울: 황금가지, 2014

토마스 브루시히 지음, 이미선 옮김, 서울: 유로, 2005

페터 브렌너 지음, 정인모, 허영재 옮김: 신 독일문학사, 서울:새문사, 2008

황윤영, 김미경: 독일문화 오디세이, 서울: 글로벌콘텐츠, 2016